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봄과 여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된 사건입니다.

#### 첫째,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 곧 기쁨이었으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청하여 모신 손님이셨습니다. 청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청할 때 주님은 우리 집 상 앞에 함께 앉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근심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 둘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답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인들은 두세 통씩 드는 돌항아리 여섯을 아귀까지 채워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뒤에 예비해 두십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셋째, 주님이 계신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 하여 가족과 마을에서  
떨어져 살았고, 가진 것을 다 써도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은 근심 덩어리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래 듣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애가 타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수없이 생각했을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들은 말씀은 이것이었  
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감사가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날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계절 동안 받은 은혜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마음에 얹혀 있는 근심  
한 가지를 서로 나누고, 그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심의 항아리가 감사의 포도주로 변합니다.  
오늘 내려놓은 근심도 다음 명절에는 이 상 앞에서 나눌 감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이 하신 일을 헤아리며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추석 가정예배



## 예배순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지난시간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신앙고백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 송

### 찬송가 589장

### 다 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 동 톨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기 도

###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쁨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요한복음 2:3-8

### 다 같이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말 씀

### 그래서 감사합니다

### 다 같이

###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같이

1. 사철에 불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